

Nothing comes from nothing:

한국 현대사에서 보는
역사의 필연성과 우연성에 대한 단상

자유기업원 연구모임 25년 6월 18일

김태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Nothing comes from nothing 로드맵

1. 역사결정론의 위험

2. 역사의 필연성과 우연성을 생각하는 몇 가지 관점

2-1 예측가능성의 관점에서 본 필연과 우연 (predictability)

2-2 구조 vs. 인간의 의지 관점에서 본 필연과 우연 (structure vs. agency)

역사는 인간에게로 오는가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가, 바칼로레아 기출문제

2-3 빈곤/폭력/혼란의 늪이 세상의 디폴트라는 관점에서 본 필연과 우연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실패는 필연, 성공은 우연?

2-4 소결 Hope against all hope: 혼돈, 애굽, 출애굽

3. 근대사회와 한국의 성공은 우연인가? 쇠퇴는 정해진 결말인가?

Nothing comes from nothing. What was that something good our ancestors did for us?

3-1 웰빙의 지속가능성

3-2. 전유와 공유

3-3. 근대사회를 기다리는 것은 아마겟돈?

3-4. 비서구권 근대화의 이중과제

3-5. 한국 근대화의 뿌리?

4. 그렇다면 어디로, 마무리 포인트

삶이 연결되어 있고 이어져 내려간다면, 우리의 누림이 옛날 누군가의 희생의 덕이라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은 무엇?

4-1. 한국인의 불행과 그 원인

4-2. 행복의 정책학, 자연과 가까운 삶,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

1. 결정론적 역사관의 위험



“The fact of the matter is that fascism is a redemptive excess of patriotic arbitrariness.”

“Politics is the art of identifying and neutralizing the enemy.”

Ivan Ilyin (1883-1954)

역사결정론자 vs.
역사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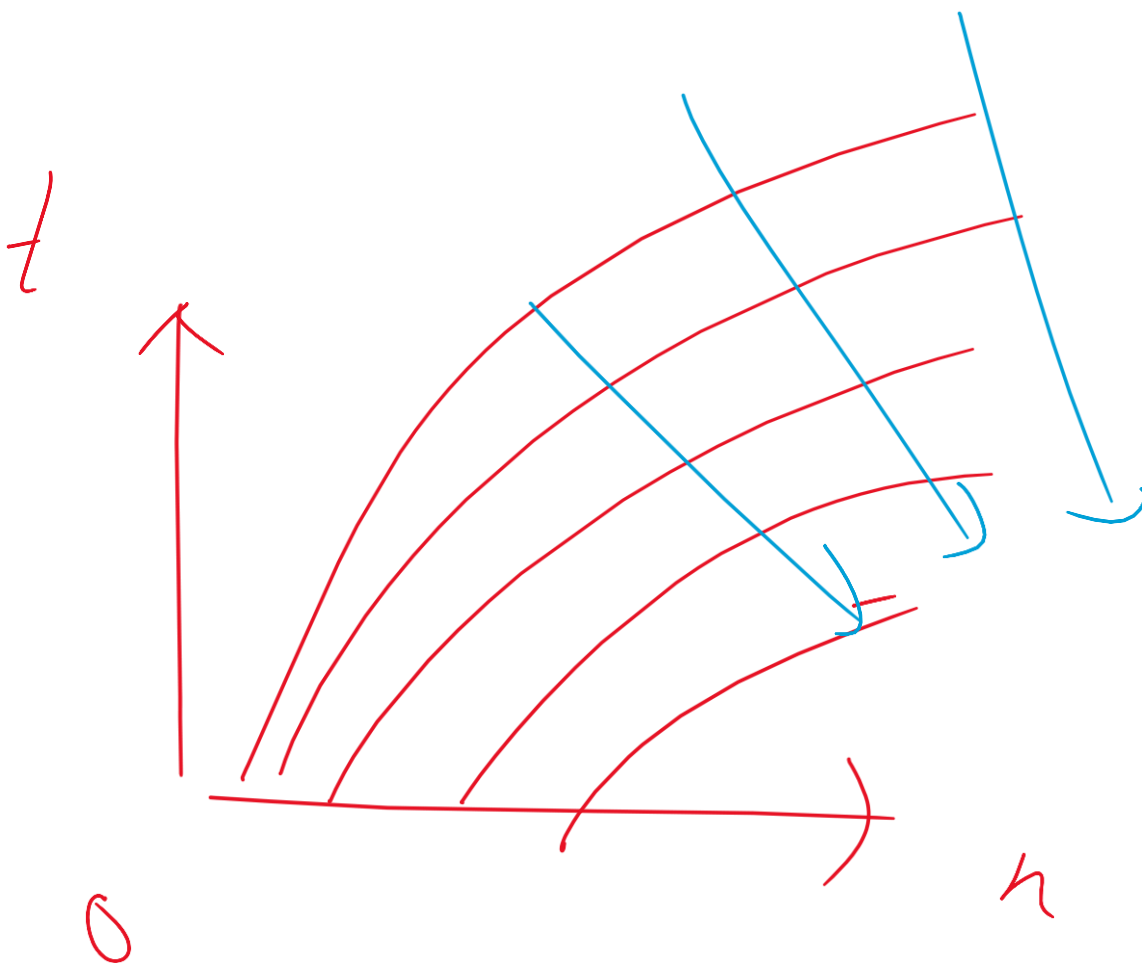
Francis Fukuyama
Ivan Ilyin
Tim Snyder

1. 결정론적 역사관의 위험

- 서구 자유주의로 역사는 종언:
 - Complacency 를 낳는 망상
 - 후쿠야마는 자기가 한 이야기를 후회하고 있을까.
- Ivan Ilyin: Russia under eternal siege, Western threat and betrayal by the domestic elite
 - 푸틴이 좋아한다는 파시스트 역사가
 - 푸틴의 편리하고 위험한 변명
 -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소리
- 역사 결정론자는 바보 혹은 미치광이? 둘 다 위험

2-1. 역사의 필연성과 우연성에 대한 기계적 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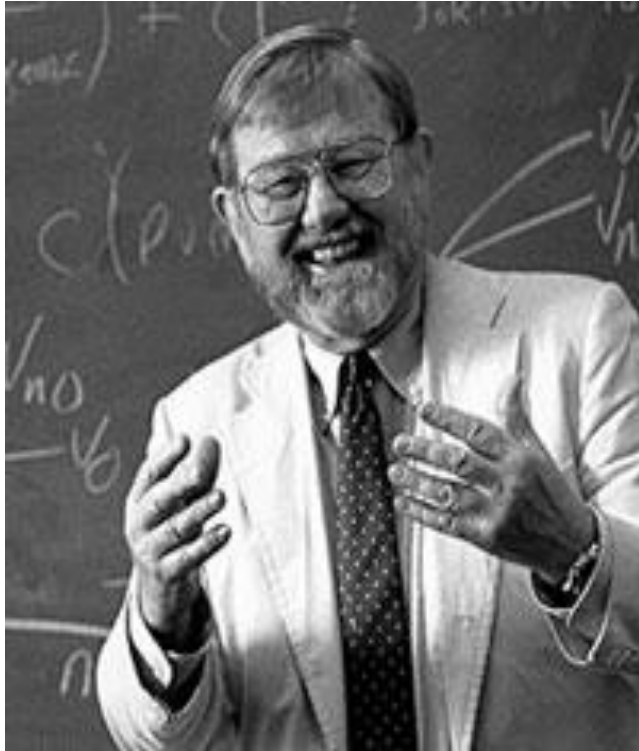
- 예측가능성으로서의 필연성
 - 예측 가능한 우연을 우연이라 할 수 있을까
 - 다음 동전이 어느 쪽으로 나올지는 알 수 없어도 여러 번 던지면 반 정도는 앞면이 나올 것이라는 것 예측하기는 쉬움 (대수의 법칙 as $n \rightarrow \infty$)
 - 술 취한 이가 비틀거리며 걸을 때 내일 새벽에 어디에 가 있을지 알 수 없어도 1분 안에 가 있을 만한 곳은 예측이 가능 (random walk)
 - 개인의 먼 미래는 예측하기 어려워도 집단 수준의 집계 변수의 단기 예측은 상대적으로 용이?
 - 필연성을 예측가능성으로 이해한다면 우연과 필연은 둘 중 하나를 취해야 하는 질문으로서는 부적절
 - 예측가능한 영역과 어려운 영역, 역사가 우연이라는 생각은 우리의 무지에 대한 겸허한 인정



- 붉은 커브 iso-predictability
- N 이 클수록 t 가 작을수록 예측가능성은 높아짐
- N 이 작을수록 t 가 클수록 예측가능성은 낮아짐
- 푸른 화살표가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는 방향
- 이렇게 본다면 역사가 우연이라는 생각은 우리의 무지의 범위에 대한 겸손한 고백?

2-2. 세상의 구조, 인간의 의지, 역사의 필연성

- 구조로서의 필연성 (as opposed to human agency)
 -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디까지 구조의 지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 조선시대 노비로 태어난 이, 여성으로 태어난 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한계, 또 양반 남성의 한계
 - 자유의 확대는 역사의 가변성을 높이고 예측가능성을 줄이는가
 - 빈곤/혼란/폭력의 높이 인간 세상의 default 라면 Yes



*경제사학: 제47권 제3호(통권 제83호)
2023년 12월 pp. 325-352

Political Economy and Population Growth in Edo-period Japan*

Taejong Kim**

During the feudal Edo-period (1603-1868) in Japan, the shogunate government relied on hereditary feudal lords and its own *bakufu* bureaucracy for regional control. Compared to hereditary lords, *bakufu* officials had shorter and less certain tenures. Analysis of public historical data shows that regions governed by *bakufu* bureaucrats are associated with (a) slower population growth, (b) slower growth in productive capacity, and (c) more frequent civil unrest. This evidence supports Mancur Olson's thesis that those with coercive power are more likely to foster a growth-friendly environment when assured of stable, long-term tenure.

Keywords: Mancur Olson, feudalism, taxation, population, economic growth
JEL Classification: H2 N4 P5

* The author is indebted to the late Prof. Yujiro Hayami, Prof. Jim Poterba, Prof. Osamu Saito, Prof. Sunku Hahn, Prof. Kaliappa Kalirajan, and Prof. Akira Hayami for critical comments and encouragement. Financial supports from the Nihon Keizai Shimbun Economic Research Foundation and the National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GRIPS), Japan, are gratefully acknowledged. The author also gratefully notes that the first draft of the paper was written while the author was working for GRIPS. The author is alone to blame for remaining deficiencies.

**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E-mail: tjkim@kdischool.ac.kr

Mancur Olson (1932-98); Muqaddimah cover; ibn Khaldun statue in Tunis; 졸고 Political Economy and Population Growth in Edo-Period Japan (경제사학 2023)

2-3. 꽃을 피워내는 human agency, 혹은 인간의 의지

- 인간이 공유된 규범과 제도 없이 각자도생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약육강식 동물의 왕국
 - 혼돈과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열역학 제2법칙
 - 인간은 자기중심적. 근시안이 되기 쉬울 뿐 아니라 서로를 견디기 힘들어 하도록 되어 있는 지랄맞은 존재
 - 도덕/규범/제도는 지속될 수 없다?
 - 인간이 만드는 세상은 기껏해야 피었다 지는 꽃, 불어났다 터지는 풍선 → 역사의 퇴행은 필연?
- 권력은 내부로부터 삭아 들어 감: ibn Khaldun Muqaddimah 이슬람권 왕조는 3대가 한계
 - 계승자의 타락, 아싸비야 (asabyyah)의 쇠퇴, 제국의 성쇠
- 권력자/권력집단이 enlightened interest, encompassing interest 에 의해 움직일 때
 - Olson and McGuire, Princes as stationary bandits 강도와 왕자는 본디 본성이 다른 것이 아니요, 강도가 자리잡고 앉으면 그가 왕자
 - 왕자가 왕자 다투려면 권력의 영속성에 대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공유된 인식이 있어야
 - 김태종, 일본 에도시대의 지배구조와 지역인구 변동. 중국/조선의 관료지배와 일본의 봉건지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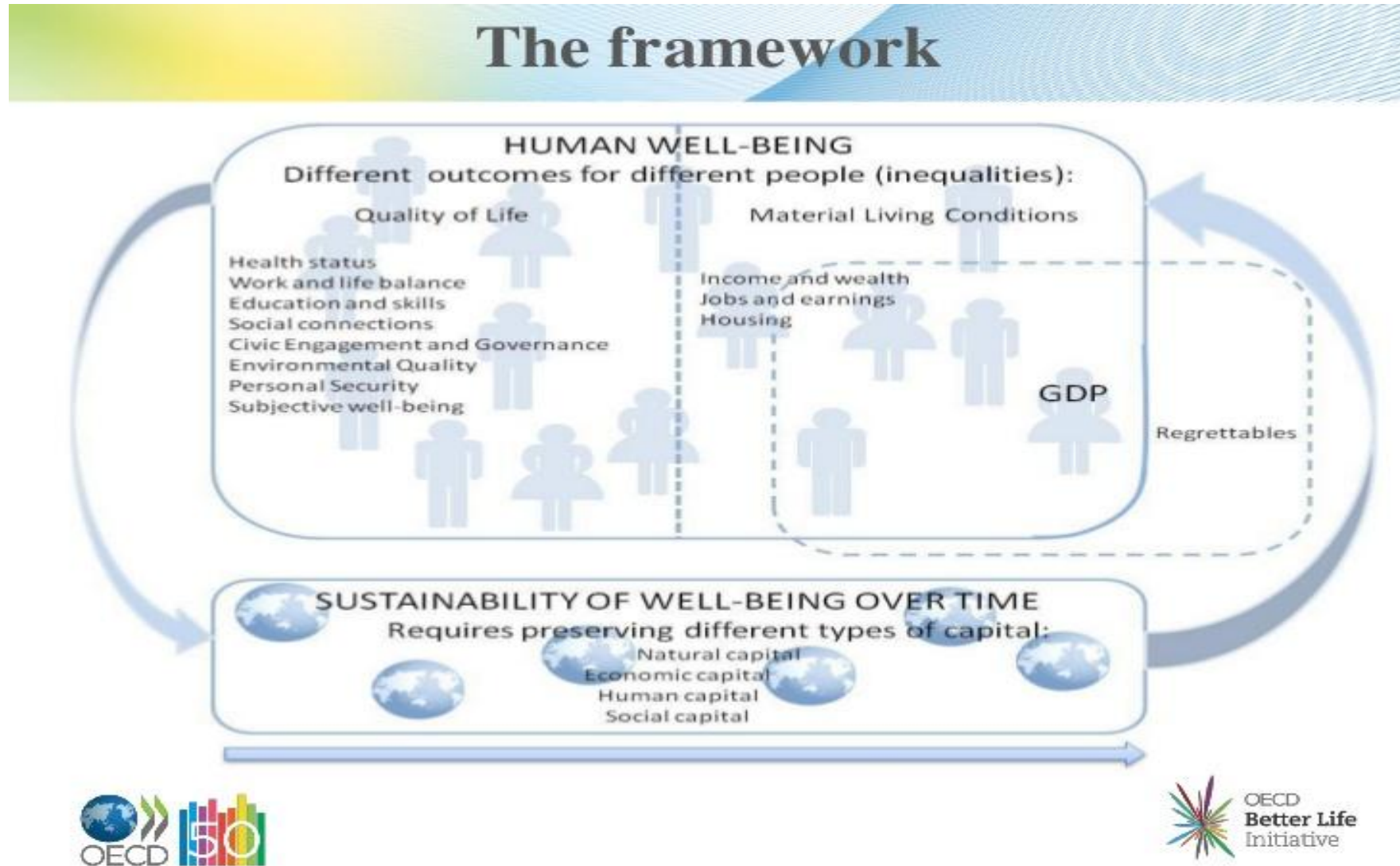
권력자의 예지/선의를 넘어서: 입헌적 민주주의

- Constitutional government (North and Weingast 명예혁명과 금융혁명 산업혁명)
-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로서의 민주주의
 - Acemoglu and Robinson
 - Durably credible commitment by the government possible only with democracy
 - Government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차현진 박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국민이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다스리는 사회가 민주주의
- 입헌민주주의는 어디에서 왔을까. 인간의 자존감. 서로에 대한 존중. 기원전 5세기경 인류의 각성. 기독교의 계시
-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가
 - 바이마르공화국, 미국과 유럽 민주주의의 위기,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 서로를 못 견뎌 하고, 무리 지어 싸우도록 결정지어져 있는 인간 본성 (more on this later)

2-4. 소결

- 필연/우연으로 양단해서 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마도 아닐 것
 -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 공존
 -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 인간의 의지에 영향 받는 부분 공존
 - 인간의 됨됨이로 보았을 때 아마도 세상의 디폴트는 혼란/빈곤/폭력의 늪, 이것이 필연?
- 혼돈에서 질서로, 지속가능한 질서로
 - 애굽의 질서만 해도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닐 것
 - 출애굽의 소망
 - 근대 서구사회의 발전이 그나마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애굽의 질서를 넘어서 전 망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
 - 인간에 대한 존중, 서로에 대한 예의
 - 근대 개인주의의 양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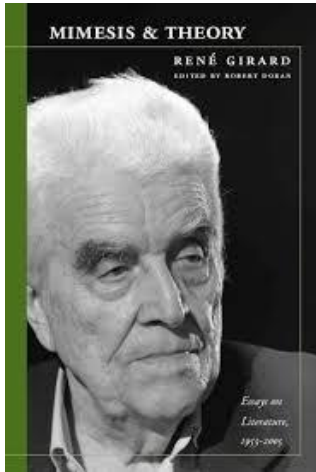
3-1. 웰빙의 지속가능성과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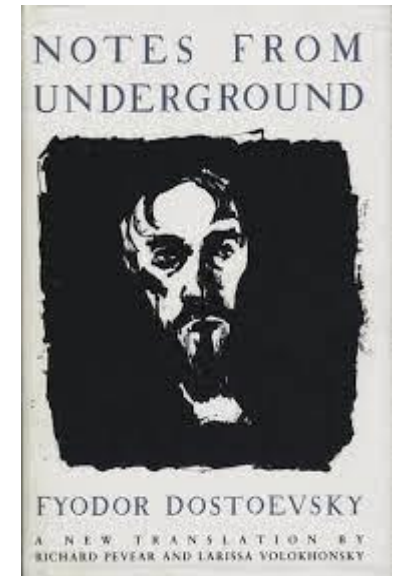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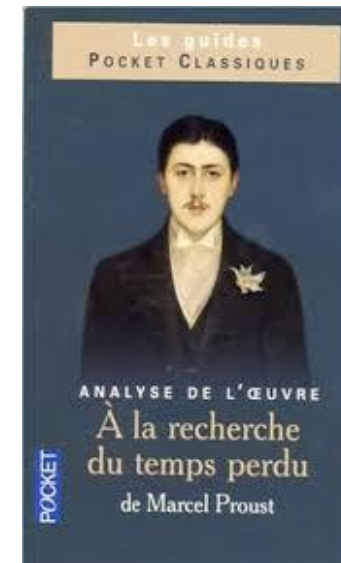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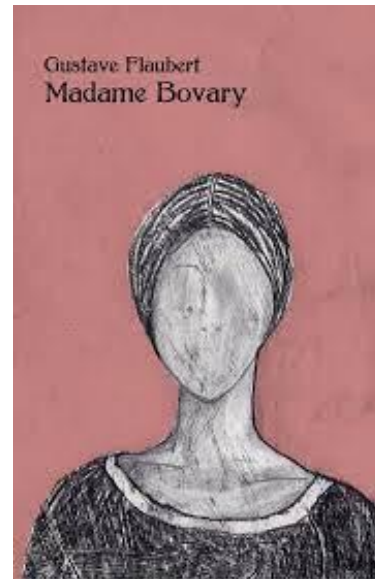
3-2. 전유 (專有) 와 공유 (共有) , 지속가능성

- 외부효과를 넘어서
- 지속가능한 발전과 물질 인적 사회 자연 자본의 충전
 - 사회적 자본과 자연 자본은 본질적으로 공유되는 것
 - 물질적 자본은 전유 가능?
 - 물질적 자본의 지속적 충전을 가능케 하는 조건은 공유로만 향유 가능?
 - 인적 자본도 마찬가지?
- 전유해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조건과 공유로 누릴 수밖에 없는 행복의 조건 (World Happiness Report)
 - 소득, 건강, 행복을 추구할 자유 전유 가능? (more on this later)
 - 부패 없는 정치, 부패 없는 경제, 사회적 지지, 전유 가능?
- 아미타이 에치오니 신공동체주의 (neo-communitarianism)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균형, 하지만
- 인간은 자기중심적, 근시안적.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도 인간이 만들어 내는 사회는 자본주의 (資本主義)
- 다시 묻게 되는 질문,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가

3-3. Rene Girard 가 짚어주는 서구 근대문학의 맥: Why are we so unhap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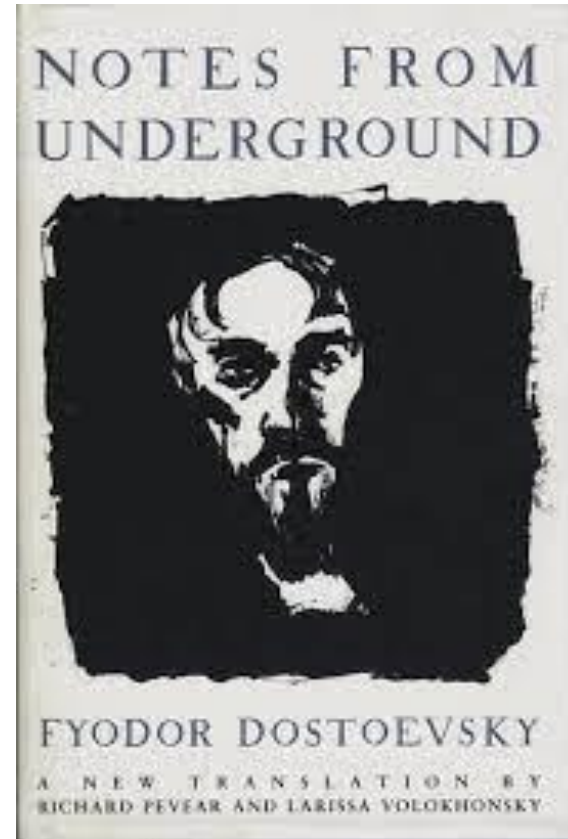


- *Don Quixote*, Cervantes
- *The Two Gentlemen of Verona*, Shakespeare
- *Red and Black*, Stendhal
- *Madame Bovary*, Flaubert
- *In Search of Lost Time*, Proust
- Dostoevsky: *The Brothers Karamazov*, *The Idiot*, *The Possessed*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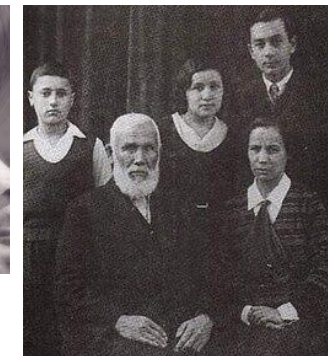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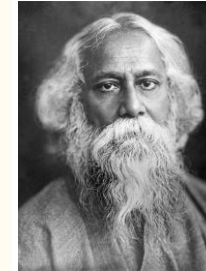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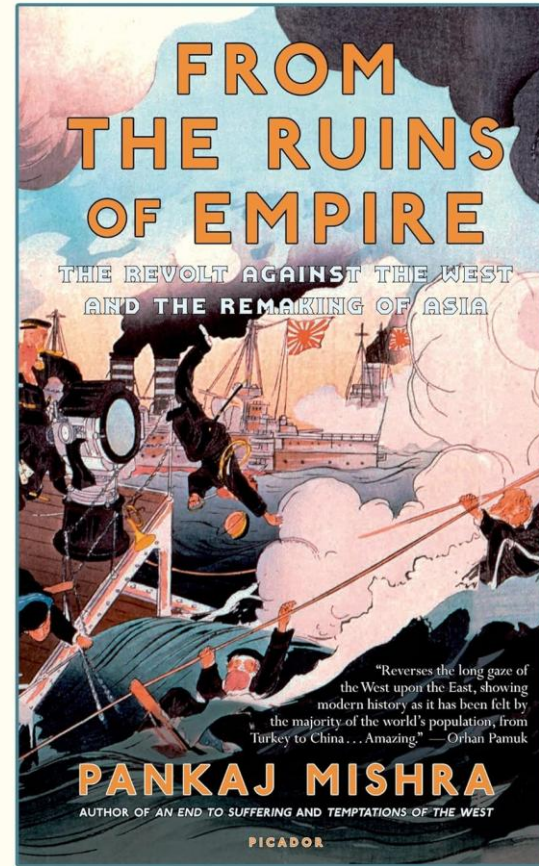
3-3. 근대 인간 내면의 위기

- Mensonge romantique et verite romanesque (Girard, 1961)
 - Mimetic desire
 - Mutual imitation of desire and escalation
 - Envy, jealousy, resentment, hatred
 - Fascination about others and suffering in isolation
- Underground man proliferating in modern times: 신분제약의 철폐, 이동성의 확대, social media
- Isolated and mad underground men easy prey for manipulative agitators 이놈 물어, 저년 물어
→ 민주주의의 위기, 아마겟돈?



3-4. 비서구권 근대화의 이중과제: From the Ruins of Empire

- 무너진 동양일 제국에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했던 리더들
 - Tagore, Gandhi, and Nehru in India
 - Liang Qichao and Sun Yat-sen in China
 - Jamal al-Din al-Afghani and Abdurreshid alIbrahim of the Ottoman Empire
 - (일본, 요시다 쇼인+유신의 3걸?)
- 타고르의 꿈
 - 서구의 자본주의/민주주의의 토대가 취약하다는 점에 대한 통찰
- 비서구 사회 근대화의 이중과제 (백낙청), 근대화의 구현 + 그 나머지를 치양
- 조선에도 이에 필적할 인물이?



3-5. 한국이라는 기적 혹은 우연

- 유연한 태세전환으로 탈선하지 않은 중화학공업 육성, 수출주도 산업화 이외에도
- 발전의 지속을 가능케 한 여러 정책들
- 인적 자본의 broad-based 축적
 - 의료보험
 - 공교육제도, 우수 인력을 교사로 배치, 공립학교 교사의 순환 근무
- 산림녹화
 - 1960년 산림법 영림계획 의무 제출, 산림계와의 수익분점 강제 조림
 - Double jeopardy: 공유지의 자원 지키기도 어렵지만 남의 땅의 나무 지켜줄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
 - Revenue sharing = forestry concession 흔히 있지만 산림계를 동원한 강제조림은 사유재산권의 심각한 침해, 아마도 전쟁중 일본 이외에는 유례가 없을 듯
- 새마을운동과 사회적자본의 충전
 - 새마을은 community driven development 또는 participatory development 의 한국판
 - 한국, 최근의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개도국에서 국가예산을 동원한 전국적 규모의 CDD/PD 역시 유례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줄이고 풀어서 이룬 발전 X, 거두어 나누어 이룬 발전 X, 거두어 고루 뿌리고 북돋워서 이룬 발전.
 - 공유되지 않은 번영이 지속될 수 있을까
 - 가처분소득 지니는 높은 편이어도 시장소득 지니는 OECD 최저 수준

3-5. (이어서) 한국이 누린 우연한 혜택 + 파워엘리트의 오만과 탈선을 제어한 제약요인들

- 일본
- 농지개혁
- 미국주도하의 세계질서
- 중국
- 자원과 buffer 의 부족으로 신속한 course correction
- 공산주의라는 위협, 특히 북한의 위협
- 내부의 견제
 - Power corrupts;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Lord Acton)
 - Monopoly abuses its power, but monopoly in a contestable market can't. (Stigler and others from Chicago)
 - 독재/권위주의의 외관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내부의 견제

3-5. (이어서) 내부의 견제 그 뿌리

- (Liberal democrats +)
- 아마도 동학, 천도교, 삼일운동
 - 삼일운동 당시 천도교인 전국에 200만
 - 교회 건립을 명분으로 헌금 모금
 - 마련된 자금으로 삼일운동 조직, 상해 임정 지원
 - 일제 치하 문화, 교육 운동의 중심축 (세계최초 어린이날, 개벽, 신여성, 어린이 잡지)
 - 인간의 존엄에 대한 자각과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는 품위
 - 성공한 collective action 의 공유된 경험에서 오는 효능감, 한국 근대화 의 자산



수운 최제우; 해월 최시형; 의암 손병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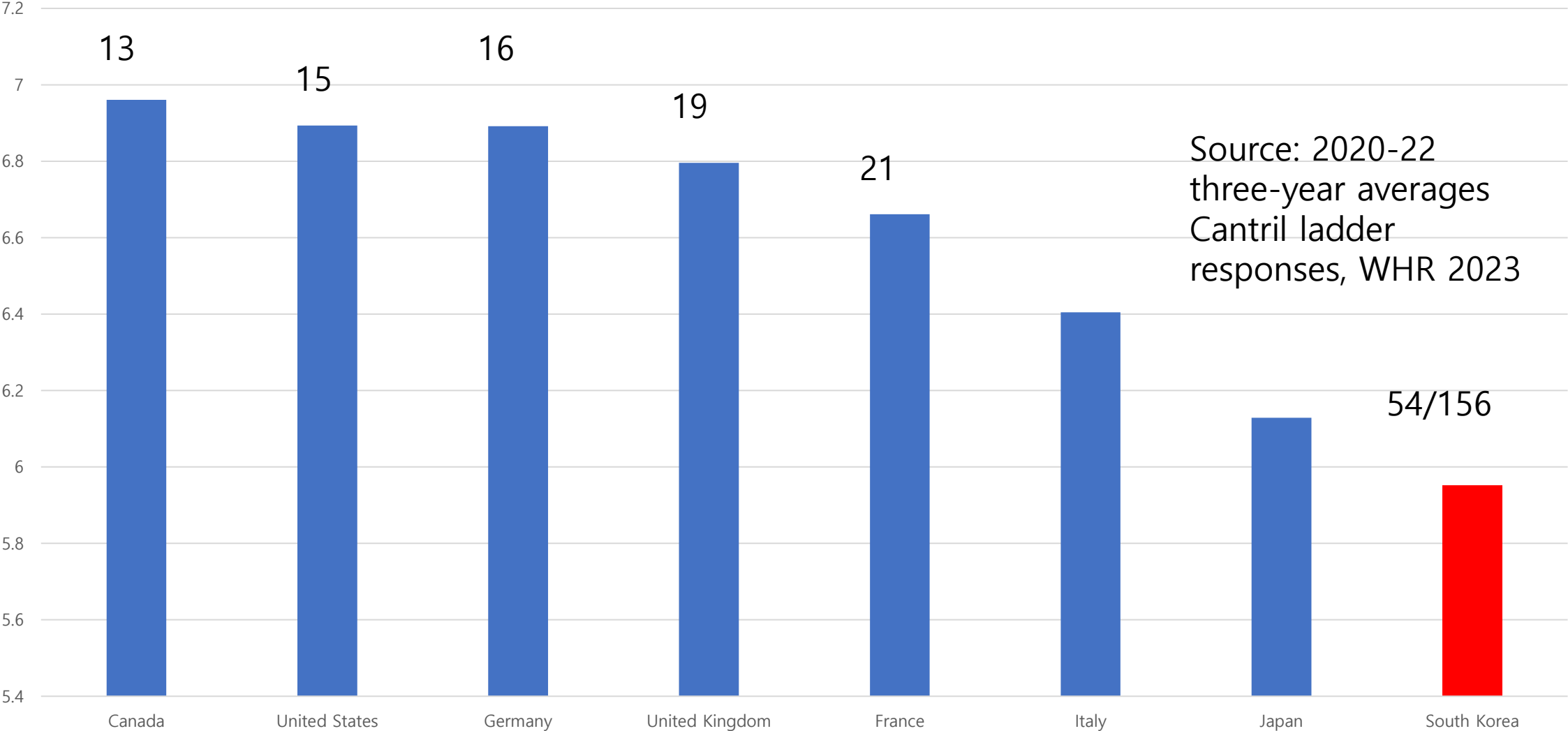


명동성당, 새문안
교회, 천도교 중앙
본당, 성공회 서울
주교좌 성당, 정동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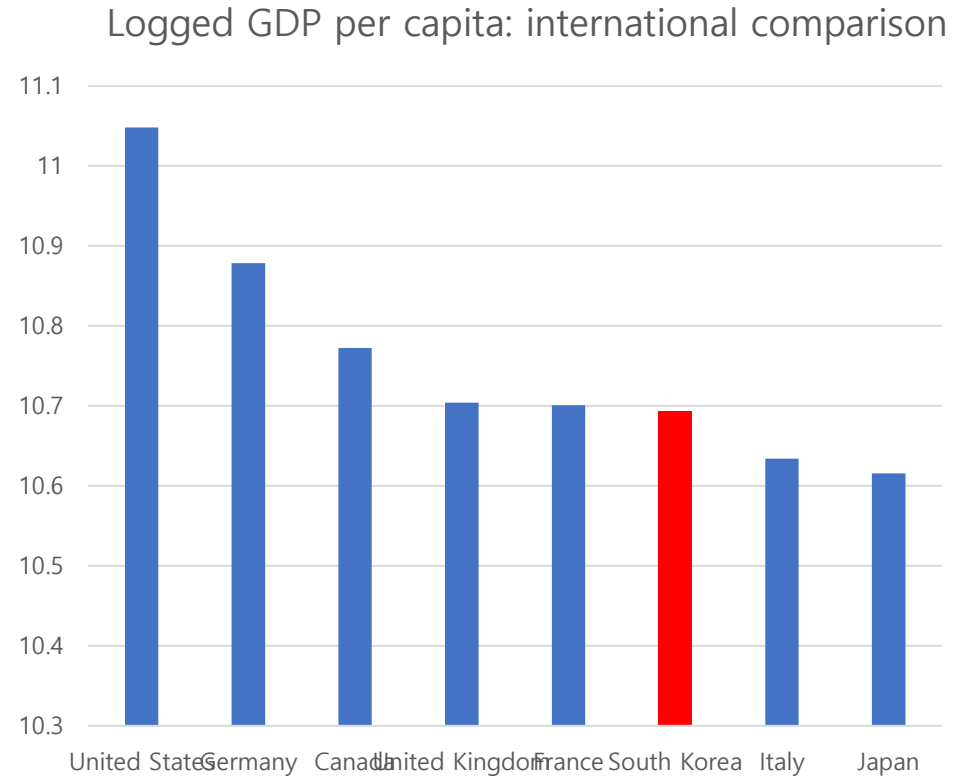
4-1. 한국인의 불행과 원인

- 여기까지가 한계? Signs of desperation in South Korea
- Suicide rate
 - 25.7 for 100,000 in 2020 (35.5 for male, 15.9 for female)
 - Highest in the world
 - cf. number of homicides per 100,000: Mexico 29.1 (2018), Brazil 27.4 (2018), Dominica 26.6 (2017), Colombia 25.3 (2018) cf. suicides in KSA 6 per 100,000 (2018) and homicides less than 1 (2018)
- Low birth rate
 - 0.977 in 2019, 0.84 in 2020 and still going down (with a sign of a slight rebound in '24)
 - The lowest in the world (World Bank)
- Per capita consumption of luxury goods (Euromonitor)
 - 212 euros in South Korea
 - Italy 169; the US 165; the UK 164; Japan 144; France 132; Germany 96; China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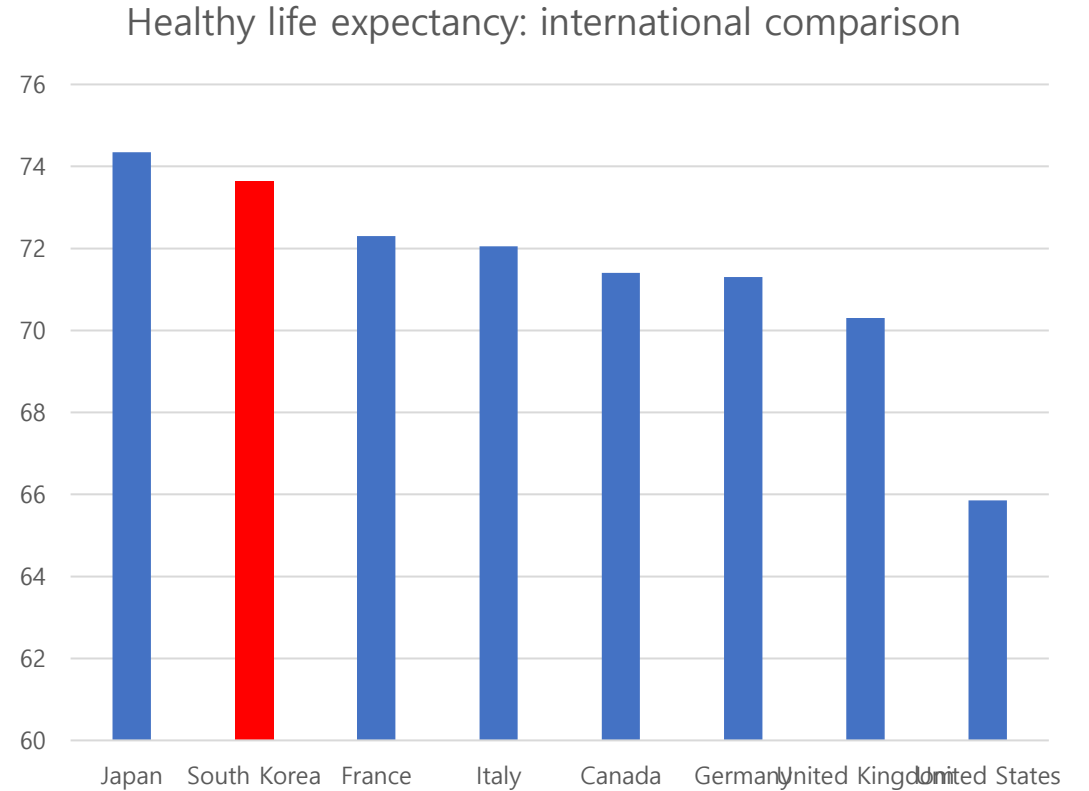
Happiness ladder scores: international comparison



South Korea vis-à-vis G7 for income and health



Calculations based on purchasing power parity figures, WHR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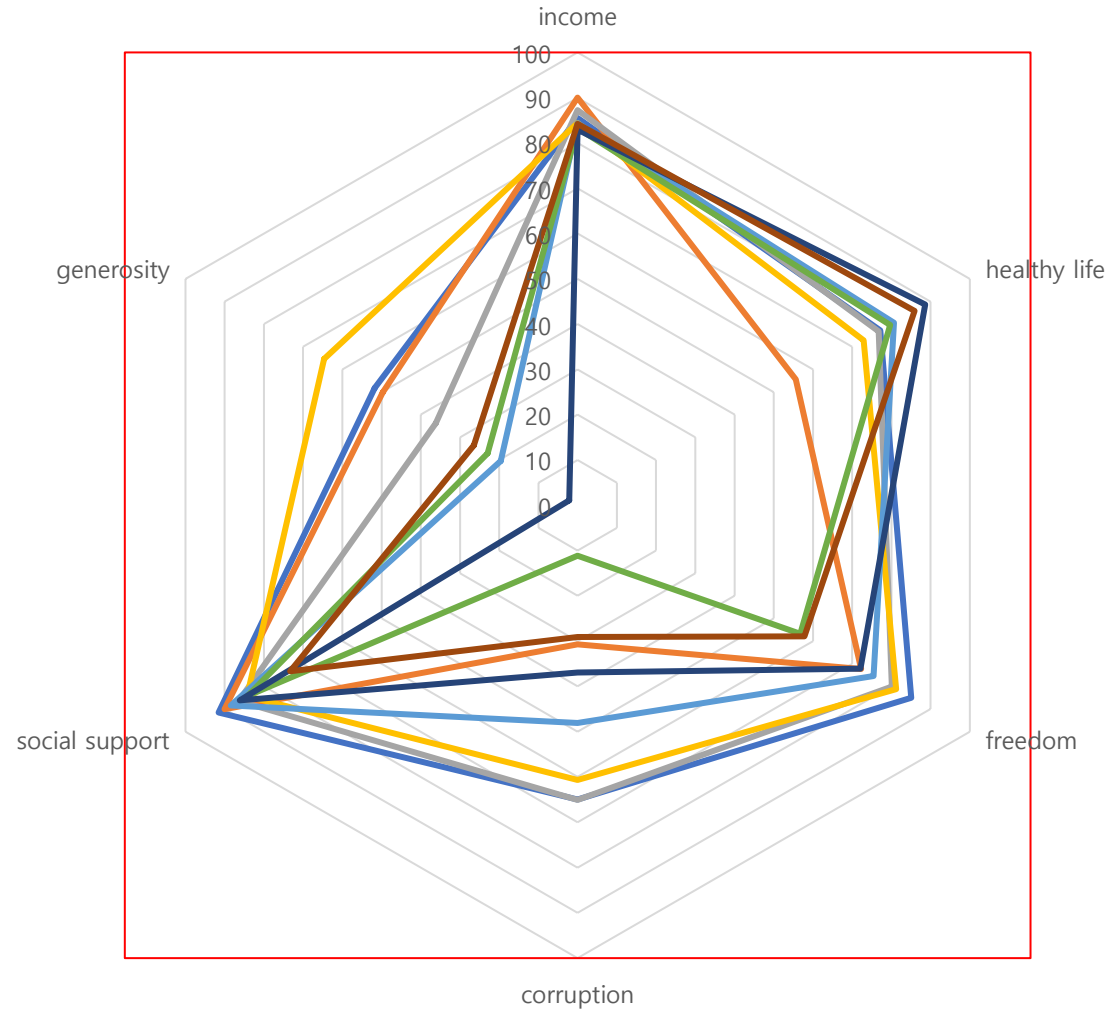
Source: WHR 2023, sourced from WHO

What makes us happy?

- Income
 - Health
 - Freedom
 - (Lack of) corruption
 - Social support
 - Generosity
-
- South Korea's World Happiness Ranking 54 out of 156 countries: 5.9 in the scale of 0-10 (Finland 7.8; Denmark 7.6, Norway 7.5; Uzbekistan 6.2, Thailand 6.0)

Determinants of happiness: international compari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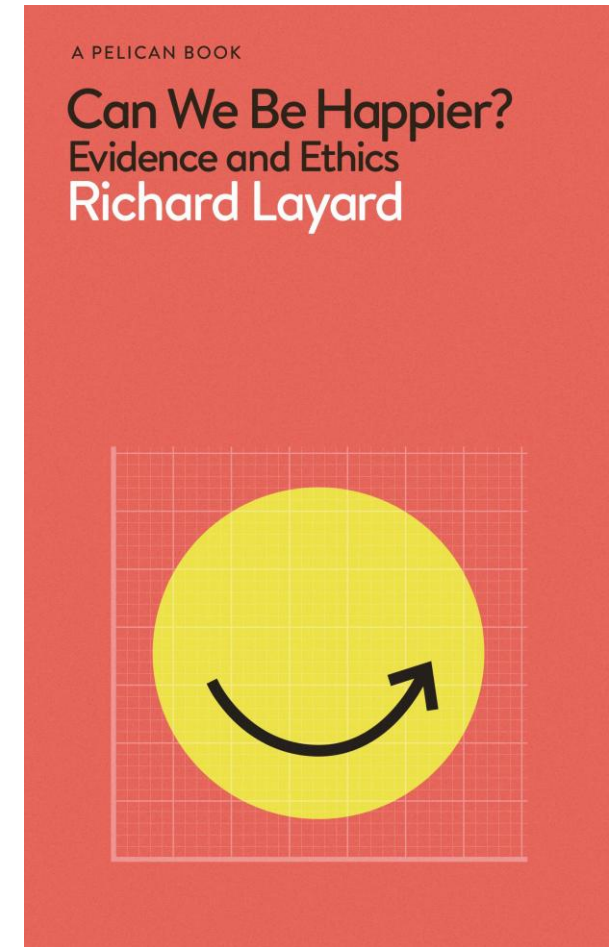
— Canada — United States — Germany — United Kingdom — France — Italy — Japan — South Korea



- Country percentile = $(\text{country score} - D) * 100 / (U - D)$ with D (Dystopia) representing the world's worst, and U (Utopia) the best.
- Perceived corruption was converted by subtracting the original score from 1 before calculation of country percentile.
- Source: author calculations based on data from WHR 2023

4-2. For a different path 행복의 정책학

- one can't be happy alone
- institutional changes are needed but we also need to learn
 - to look around us, to loosen one's grabbing hand, and to experience communication in a respectful mode
- things that can be tried at home, work, and local community
- collaboration among academia, media, government and the civil society
- 자연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법 사회적 학습? 문화의 전환을 위하여





드레스덴의 경험

접근성 높은 도심의 녹지 happiness accounting

$$\Delta Happiness = \Delta exposure\ to\ green - \Delta income > 0 ?\ or < 0 ?$$

Green urban spaces, blue spaces, heritage sites, public parks, museums, and participation in cultural activities: what would be their net effects on happiness, if the costs are shared by beneficiaries?

Krekel et al. 2016. The greener, the happier? *Ecological Economics*

Focused conversation method (FCM or ORID)



From left, Late Prof. Shin Jwa Seop; Prof. Shin with an illustration of his father, the poet Shin Dong Yup; Prof. Yoon Hyun Bae
Q: 중고등학생들에게 체험시킨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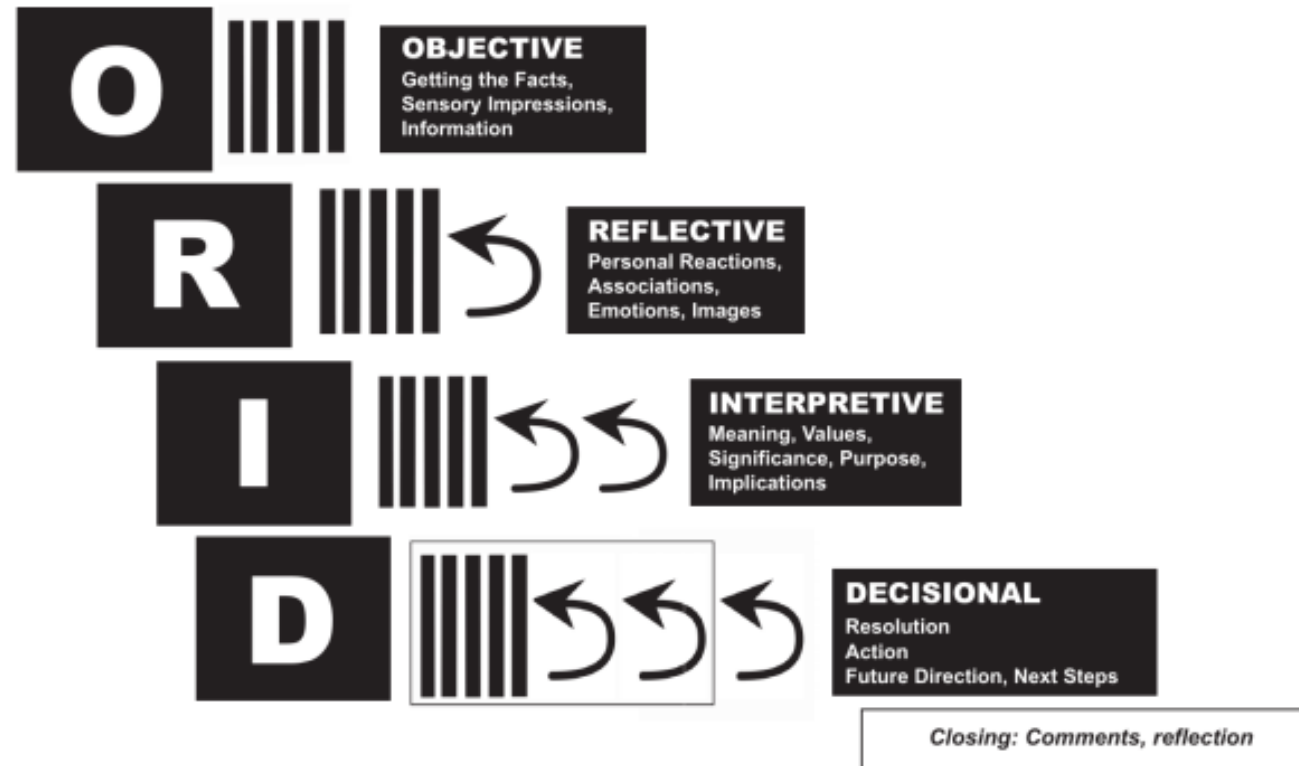
Focused Conversation Method Structure

Topic: The focus or subject of the conversation

Rational Aim: The intent or practical goal of the conversation.

Experiential Aim: The inner impact and the overall experience of the conversation on the group.

Opening: Welcome, context



The Participation Principles

Everyone had wisdom to share.

We need everyone's wisdom for the best result.

The whole picture comes through hearing and understanding all the perspectives.

There are no wrong answers.

The wisdom of the whole is greater than the sum of its p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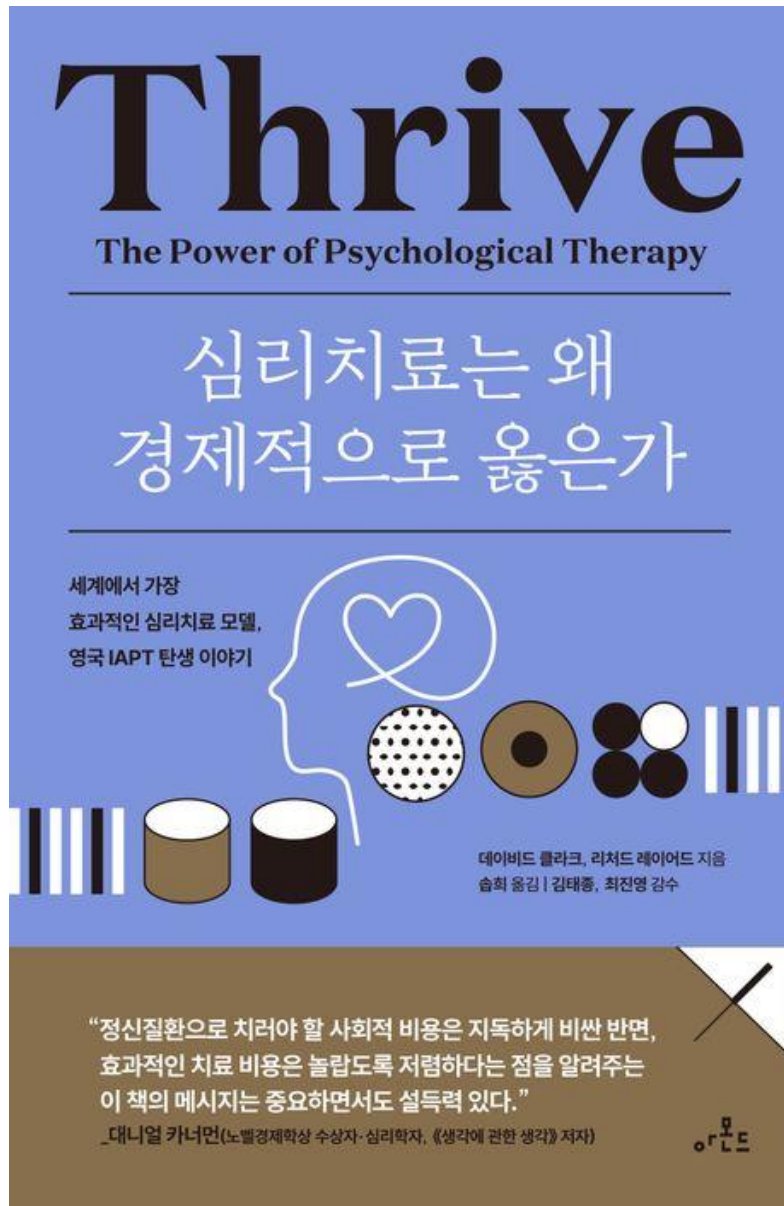
The more people we engage through participation, the wiser we can all become.

Participation blows out our images of what is possible.

People commit to what they create.

The people who implement a plan are the best ones to create the plan.

Participation creates a sense of self-worth, enthusiasm, respect and accomplishment.



David Clark, Oxford, and
Richard Layard, LSE
Authors of *Thrive*



Nothing comes from nothing

김영록

한국외국어대학교
자유기업원 토론

- ① 이번 토론에서는 ‘역사는 필연인가, 우연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두 텍스트를 연결하여 살펴본다.
- ② 김태종 교수의 발표자료는 역사에서 구조와 인간의 의지, 필연성과 우연성의 긴장을 탐구하며, Edo 시대 일본의 정치경제와 인구변화를 다룬 논문은 구체적 역사 사례로서 권력 구조가 지역발전과 인구변화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김태중 교수: 역사는 필연 아니면 우연

- ① 역사는 단선적 필연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예측 가능한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이 공존함을 강조.
- ② 인간 본성상 질서보다는 혼란, 빈곤, 폭력의 상태가 '디폴트'라 할 수 있고, 이를 극복하는 질서 구축이 중요함.
- ③ 현대 사회의 웰빙과 지속가능성은 전유(專有)와 공유(共有)의 균형에 달려 있으며, 신공동체주의가 이를 뒷받침.
- ④ 민주주의의 자기 보존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근대 개인주의와 집단적 공공성의 긴장을 탐구.

김태중 교수: Political Economy and Population Change in Edo Period Japan

- ① 일본 에도 시대의 지역 통치는 세습영주와 막부 관료집단이 맡았다. 세습영주는 안정적 영속성이 보장되었고, 관료들은 단기 임기로 교체가 빈번.
- ② 연구는 Olson의 'stationary bandit'(정주형 도적) 가설을 검증: 장기 안정적 권력은 공공재 제공과 온건한 세금정책을 촉진하여 생산성과 인구성장을 유도.
- ③ 결과적으로 막부 관료 지배 지역은 인구증가율과 생산성 증가율이 낮고, 민란이 잦았다.
- ④ 정치체제의 특성과 경제성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며, 동아시아의 근대화 비교에도 함의가 있음.

공통 주제

- ① 두 자료는 다음의 핵심 주제를 공유한다:
- ② 구조와 인간 의지.
- ③ 권력의 지속성과 공공성
- ④ 현대적 시사점

주요 토론 질문

- ① 역사는 필연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는가, 아니면 우연의 연속인가?
- ② 막부 관료와 세습영주 간의 통치 방식 차이는 오늘날 중앙집권과 지방자치 논의에 어떤 통찰을 주는가?
- ③ Olson의 가설은 현대 권력 구조에도 적용 가능한가?
- ④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웰빙과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 ⑤ 동아시아의 근대화 실패·성공 사례와 권력 구조 간의 연관성을 현대 정치경제로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

결론

- ① 역사 연구와 정치경제학은 '필연과 우연'이라는 고전적 질문을 실증 사례로 해명하고 있다.
- ② 일본 에도 시대 사례는 안정적 권력 구조가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를 가능케 했음을 보여주며, 이는 근대화 이론과도 연계된다.
- ③ 나아가 현대 사회가 직면한 민주주의 위기와 공동체 자본의 역할에 대한 성찰로 이어질 수 있다.
- ④ 제안: 참석자들은 각자 현대적 사례(예: 한국 지방자치, 중앙정부 정책, 국제 개발원조 등)와 연결하여 자유롭게 토론해 봅시다.

역사의 우연과 필연: Rene Girard의 mimesis를 중심으로

20250620

박명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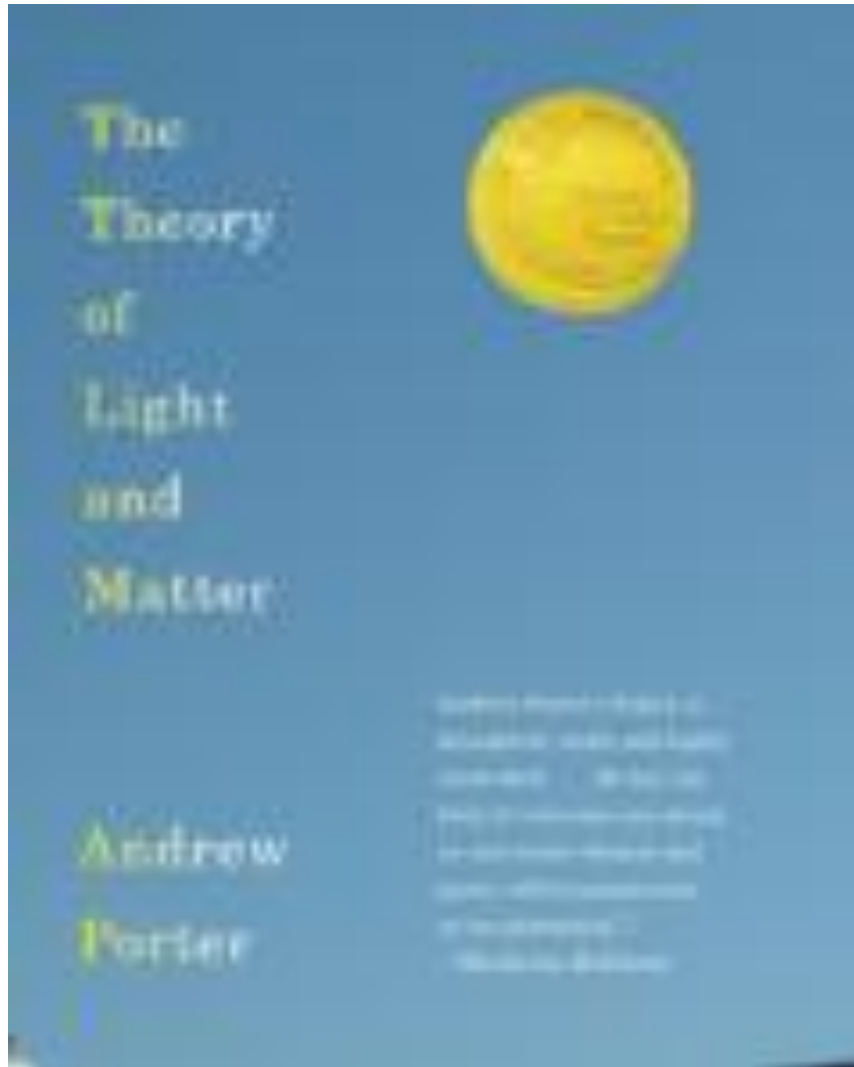
Mensonge romantique et verite romanesque (Girard, 1961)

- Mensonge romantique et verite romanesque
 - Desir Mimétique (Mimetic desire)
 - Mutual imitation of desire and escalation
 - Envy, jealousy, resentment, hatred
 - Fascination about others and suffering in isolation
- Mimetic desire and economic development
 - 호모에코노미쿠스보다는 모방하는 존재로서 경제주체
 - 욕망의 전염성이 유난히 높은 한국: 브랜드, 유명인사 의존성 등
 - 욕망의 전염성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경쟁과열, 거품형성, 불만족 등 부정적 결과 초래
 - 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
 - 높은 가격 자체가 모방적 욕망의 대상이 되는 사치재의 만연 역시 한국적 현상
 - 국가 간에도 미메시스적 욕망이 작동: 2차 대전 이후 미국식 소비문화와 경제시스템의 모방이 경제성장을 초래

René Girard 『La Violence et le Sacré』

- La Violence et le Sacré
 - 인간 사회에서 폭력과 신성(성스러움)의 관계를 탐구
 - 인간의 욕망이 본질적으로 모방적(미메시스적)
 -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며, 이로 인해 경쟁과 갈등, 그리고 폭력이 발생
- 모방적 욕망이 사회 전반에 퍼질 때, 집단 내의 긴장과 폭력은 점점 증폭되어 결국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위기로 치닫게 될 것임
- Girard는 이 위기가 *희생양 메커니즘*을 통해 해소된다고 설명
 - 집단은 무작위로 한 명(혹은 소수)을 희생양으로 삼아 폭력을 집중시키고, 그 희생을 통해 공동체 내의 긴장이 해소되며 질서가 회복
- 종교와 희생 제의는 이러한 폭력의 순환을 제도화한 것으로, 희생양을 신성시하고, 반복적인 제의를 통해 사회적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
- 현대 사회에서 시장은 전통적 종교의 희생양 메커니즘을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는 해석도 있음
 - 교환과 거래의 규칙(경제적 합리성)은 폭력적 경쟁을 제어하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됩니다
 - 프랑스 경제학자 Michel Aglieta는 『La violence de la monnaie』에서, 시장과 화폐 시스템이 미메시스적 갈등을 조절하는 현대의 '신성한 제도'라고 해석
 - 그렇지만 경제적 합리성은 이전의 폭력적 갈등을 줄이지만, 경쟁과 소외, 불평등 등 또 다른 형태의 희생양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

Andrew Porter: the theory of light and matter



- 빛은 순간적으로 포착되는 감정, 관계의 미묘한 변화, 인생의 결정적 순간을 상징
 - 빛은 또한 인물들이 겪는 깨달음, 성장, 혹은 이해의 순간을 의미
 - 깨달음은 종종 잠깐 스치는 것으로 소유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님
- 물질은 시간의 흐름, 상실, 책임, 선택의 무게 등 인물들이 실제로 감당해야 하는 삶의 실체적 측면을 상징
 - 물질은 빛과 달리 쉽게 변하지 않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나 관계의 실질적인 결과로 남음
- 포터는 빛(찰나, 가능성)과 물질(실체, 무게)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통해, 인생이란 덧없음과 실체적 경험이 교차하는 지점임을 보여줌
- 주인공은 열정(빛)과 안정(물질) 사이에서 갈등하며, 결국 실질적인 선택(물질)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의 섬광(빛)은 사라지지 않음
 - 포터의 인물들은 관계 속에서 "붙잡는 것과 놓아주는 것", "이해와 오해", "기억과 망각" 사이를 오가며, 이 모든 순간이 모여 삶의 복잡한 직조를 이룸

혁신, 모방 그리고 경제 발전

- 쉘페터의 혁신
 - 창조적 파괴와 모방 과정의 되풀이
 - 쉘페터의 혁신 개념과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은 모두 모방을 사회 변화와 발전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본다는 점에서 구조적 유사성
- 한국의 고속성장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는 '잘 살아보자'는 집단적 욕망을 형성했고, 이는 선진국(특히 일본, 미국 등)의 발전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방하는 형태로 표출
 - 정부는 국민 전체를 '근대화의 주체'로 호명하며, 선진국의 경제 시스템, 산업구조, 생활양식 등을 대대적으로 모방
 - 국민은 산업화와 경제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집단적 모방 욕망이 대규모 사회적 에너지로 전환
- 한국의 압축성장은 미메시스(모방)와 혁신이 결합된 '추격형 성장'의 전형
 - 모방에서 혁신으로: 초기에는 선진국의 산업과 기술을 빠르게 모방(미메시스)했지만, 일정 수준에 도달한 뒤에는 자체적인 혁신(쉘페터적 창조적 파괴)으로 성장 전략을 전환
 - 사회적 욕망과 경제적 동인: 국민적 욕망(잘 살아보자, 선진국 따라잡기)이 집단적 모방을 촉진했고, 이는 경제적 혁신의 동력으로 작용
- 추격형 성장의 한계
 - 모방 중심의 성장 전략은 일정 수준까지는 빠른 성장이 가능하지만, 기술 프런티어에 근접할수록 자체 혁신 역량이 더욱 중요
 - 한국도 1997년 이후 연구개발과 혁신에 집중하며 선진국형 성장으로 전환
 - 급격한 모방과 경쟁은 빈부격차, 재벌 중심 경제, 사회적 불균형 등 부작용도 초래

김태종 교수 발표에 대한 토론자료

박성훈 (고려대 국제대학원)

국가발전에 있어서 우연과 필연에 관한 기본적 질문

- 매우 어려운 질문/담론을 제기한 데 대한 감사!
- 획일적인 해답은 불가
 - 리더십, 사회자본 (제도, 신뢰 등)의 역할 중요→필연을 뒷받침
 - 종교는?
 - 대규모 자연재해 (후쿠시마, 폼페이 등)는 우연의 요소로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전쟁은 어떤 요소인가?
- 그렇다면 추가적인 질문: “우연>필연” 인가? “필연>우연” 인가?
 - 역사학자/경제발전 학자들의 견해는?
 - 김태종 교수님의 견해는?

한국경제 발전에 있어서의 필연과 우연

- 필연적인 요소는?
 - 강력한 리더십에 기초한 산업발전
 - 다양한 정책적 결정에 기반한 국가발전방향에 대한 컨센서스
 - 이러한 컨센서스는 2000년대 들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다양성?
 - 이런 현실이 더 바람직한가?
- 우연적인 요소는?
 - 한국전쟁/베트남전쟁 등
 - 다자간무역규범의 구축 및 작동
 - 중국의 부상에 따른 기회 및 위협의 공존
 - 트럼프즘에 의한 국제경제질서 혼란은 일시적인가?

한국경제의 향후 발전방향은?

-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소는?
 - 경제의 구조개혁 및 정책방향 전환?
 - Efficiency vs. equality?
 - Growth vs. welfare?
 - United States vs. China?
 - Value-based vs. interest-oriented policy?
- 유연적인 요소는 통제가 불가능→사후적으로만 평가 가능

역사는 우연인가 필연인가 ?

2025. 6. 20.

신 성 식



ICT전략연구소
기술전략연구센터

역사는 우연인가 필연인가: 개념 정리

- **필연적 역사관 (Deterministic View of History):** 역사는 일정한 법칙, 구조, 정신의 진보 또는 신의 섭리에 따라 전개된다고 보는 관점
 - 헤겔: 역사는 정신(Geist)의 자기 전개과정으로, '정 ↔ 반 → 합'의 변증법에 따라 진보
 - 마르크스/엥겔스: 경제적 토대(생산양식)의 변화와 계급투쟁으로 설명되는 역사 발전의 필연성
 - 계몽주의자들: 인간 이성의 진보를 통해 사회가 점차 개선된다고 보는 낙관적 발전사관
 - 기독교/이슬람: 역사는 신의 계획(섭리)에 의해 예정되어 있다는 운명론적 역사관
- **우연적 역사관 (Contingent View of History):** 역사는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사건들, 개인의 선택, 자연재해, 돌발 상황 등이 중첩된 결과라는 시각
 - 토인비: 문명의 발전은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지만, 결과는 우연과 환경적 조건에 좌우됨
 - 포스트모더니즘: 역사는 분열된 이야기들의 집합이며, 통일된 거대 서사 자체를 부정
 - 카를 포퍼: 예측 불가능한 인간 행위가 역사의 핵심이며, 역사주의(historicism)를 비판
- **우연과 필연의 상호작용 (Combined Perspective):** 현대 역사학은 두 관점을 결합하여, 구조적 필연성과 우연적 사건이 함께 역사를 형성한다고 봄
 - 마르크스주의 내부적 확장: 역사 발전은 구조적 필연이지만, 혁명이나 사건의 발발은 우연적 (ex. 러시아 혁명)
 - 브로델: '장기 지속(구조)'과 '단기 사건(우연)'의 이중 구조론
 - 제2차 세계대전 사례: 민족주의·제국주의(필연)와 사라예보 사건(우연)의 결합
 - 실존주의/현상학: 인간의 선택은 자유지만, 그 선택은 필연적 조건 안에서 이루어짐
- **결론: 역사는 우연과 필연의 반복**
 - 균형 잡힌 역사관: 단일한 이론으로 환원하기보다, 인간의 의지와 제도적 구조, 돌발 상황과 긴 흐름이 얹히며 역사가 만들어짐
 - 정책적 시사점: 현재 사회 문제도 구조와 선택, 우연과 조건 사이의 복합성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암시

역사는 필연 아니면 우연

■ 역사결정론에 대한 비판

-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 같은 결정론은 현실을 왜곡하거나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
- 푸틴이 인용한 Ivan Ilyin은 역사결정론의 위험성을 보여줌

■ 필연성과 우연을 가르는 여러 관점

- **예측가능성: 정보가 부족할수록 우연처럼 보임**
- 구조 vs. 의지: 제도적 조건(노비제, 성별 등)과 개인의 의지 사이 긴장
- 엔트로피와 인간 본성: 무질서와 폭력은 인간사의 디폴트
=> 성공은 우연, 실패는 필연?

■ 한국 근대화의 우연성과 필연

- 산림녹화, 새마을운동, 교육개혁 등은 정책적 개입과 사회적 자본의 결합 결과
- 일본·미국 등 외적 조건의 우연한 혜택도 있었음

■ 미래를 위한 시사점

- 한국인의 불행(자살률, 출산율)과 그 구조적 원인 탐색
- '행복의 정책학': 소유보다 존중과 관계, 공동체적 삶의 회복

에도 시대 일본의 정치 경제와 인구 증가

■ 핵심 논지

- Mancur Olson의 이론 검증: '정착형 강도(stationary bandits)'는 장기적인 번영을 위해 착취 대신 투자
- 분석 대상: 에도 시대 막부관료 통치 지역 vs. 세습영주 통치 지역

■ 주요 결과

- 막부 지역은 인구 증가율 낮고, 생산성 향상도 적으며, 봉기 발생률 높음
- 이는 단기 이익 추구 경향 => 장기 발전 저해
- 세습영주 지역은 '포괄적 이해(encompassing interest)'로 인해 장기적 발전 유리

■ 시사점

- 일본 근대화의 기초는 오히려 봉건제의 장기적 안정성에 기인 가능성
- **중국·조선의 순환 관료제는 단기적 이해관계로 인해 장기 발전 저해**

‘역사는 필연 아니면 우연’ 토론 질문

■ 에도시대 일본의 ‘세습 영주제’는 경제적 성공의 필연적 조건이었는가?

- (배경) 논문에서 세습 영주의 장기 통치는 ‘포괄적 이해(encompassing interest)’를 형성하여 지역의 인구 성장, 생산력 증가, 사회 안정에 기여
- 세습제라는 비민주적 체제가 오히려 안정적 경제 발전을 낳을 수 있는가?
- 오늘날에도 장기 임기 or 안정된 권한이 더 나은 정책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 공정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쪽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는가?

■ 한국의 출산율·자살률 문제는 구조적 필연인가, 정책 실패의 결과인가?

- (배경) 발표에서 ‘빈곤/폭력/혼란의 늪’은 인간사회의 기본값이라고 보았음
- 지금의 위기는 자본주의, 개인주의 등의 구조적 필연인가?
- 정부 정책(보육, 복지, 일자리 등)의 선택과 의지 부족 때문인가?
- 해결을 위해 ‘구조 개혁’이 필요한가, 아니면 ‘개별 정책 보완’으로 충분한가?

■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는 ‘우연한 혜택’의 결과였는가?

- (배경) 외부 환경(미국 질서, 북한 위협, 일본 식민 지배 등)의 영향 강조됨
- 산업화와 민주화는 내부의 전략적 선택인가, 아니면 외생적 조건의 결과인가?
- 만약 우연이었다면, 앞으로도 그러한 ‘행운’을 기대할 수 있을까?

■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포괄적 이해(encompassing interest)’를 지닌 리더십을 갖고 있는가?

- (배경) Olson 이론에서 장기적 책임감을 가진 지배자는 특정 집단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장기적 이익 고려
- 오늘날 한국의 정치/행정/기업 지도자들은 주요 정책(부동산, 출산율, 연금개혁 등)에 얼마나 장기적 비전을 갖고 있는가?
- 단기성과주의, 인기정치, 사익추구가 압도하고 있는 구조는 아닌가?
- ‘포괄적 이해’를 갖는 리더십을 유도하려면 어떤 제도적 유인이 필요할까?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THANK YOU

김태종 교수 발표에 대한 토론: 역사는 필연 아니면 우연

2025.6.20

전홍택 (KDI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

- 김태종 교수는 한국 근대사의 기적(산업화)을 설명하기 위해 **역사학**의 오랜 기본적 질문(**역사의 필연성과 우연성**)과 **사회과학**(정치학·경제학 등)의 기본적인 질문(**근대화 혹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토대로
 - 인간본성에 대한 Girard의 철학적 인류학 접근방식인 '**욕망의 모방**' 이론과 OECD의 Well-being Framework 와 Better Life Index, World Happiness Report 등 **행복 연구** 까지 고찰.
- 역사와 철학, 그리고 사회과학을 넘나드는 해박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한국의 현대사에 적용한 것을 높이 평가
- 토론: 역사의 필연성과 우연성, 근대화(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토론자의 견해
- 질문: 민주주의의 위기와 행복연구의 역할

1. 역사의 필연성과 우연성

▶ 고대 그리스

-헤로도투스: 역사적 사건이 단순히 **신의 의지(필연)**나 **우연**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 다양한 원인,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됨

<필연성과 우연성의 경계>

- 필연성의 탐구: 역사적 사건이 일정한 인과관계와 논리적 연쇄에 따라 전개되며 사건에는 필연적 배경(정치, 사회, 문화 등)이 존재한다고 봄
- 우연성의 인정: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사건이나 개인의 선택, 돌발적 계기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음을 인정했는데 이는 인간의 무지, 정보의 한계, 그리고 실제 세상의 복잡성에서 비롯됨.

1. 역사의 필연성과 우연성

▶ 고대 그리스

-헤로도투스

- 신의 개입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이 역사의 주요 동인임을 강조

-투키디데스는 우연보다 필연적 원인을 강조

-폴리비우스는 우연의 역할에 주목

▶ 중세

-기독교적 섭리관이 역사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데에 영향을 미침

1. 역사의 필연성과 우연성

▶ 계몽주의와 근대

- 기독교적 섭리보다 인간의 이성과 의지 혹은 선택에 주목
- 파스칼은 '클레오파트라의 코'라는 유명한 비유를 통해 우연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제시.
- 헤겔은 역사를 '세계정신'의 자기 전개 과정으로 보아 필연적 법칙에 따라 역사가 진행된다고 보았음.
- 마르크스는 헤겔의 변증법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였으며 역사는 경제적 토대와 생산력의 발전이라는 필연적 법칙에 따라 전개된다고 주장.

1. 역사의 필연성과 우연성

▶ 현대초기

-E H Carr는 "역사에서의 우연은 우리의 무지일 뿐, 모든 사건은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

⇒근대·현대 초기 역사학은 필연적 법칙(경제, 구조, 계급 등)에 무게를 두고 역사는 이성적 진보와 역사적 필연성에 따라 전개된다는 입장이 주류

▶ 현대 역사학의 이성적 진보와 역사의 필연성에 대한 비판

-진보와 필연성에 대한 회의

- 진보의 방향성 비판: 현대 역사학은 역사가 진보하거나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다는 진보의 필연성을 의심(전쟁, 대량학살, 식민주의, 사회적 퇴보)

- 역사적 결정론의 한계: 실제 역사는 복수의 원인과 예측 불가능한 사건, 다양한 행위자의 선택이 중첩되어 전개 된다고 강조

▶ 현대 역사학의 이성적 진보와 역사의 필연성에 대한 비판

-해석의 주관성 문제

- 역사 왜곡의 위험: 해석 중심주의는 특정 이념이나 집단이 역사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우연성·개별성의 강조

- 우연성과 다양성의 복원: 현대 역사학은 우연적 사건, 개인의 선택, 예측 불가능한 변수 등이 역사 전개에 핵심임을 강조

⇒ **현대 역사학의 주류 견해는 역사는 우연과 필연의 복합적 산물이라는 입장**

- 역사는 더 이상 필연적 진보의 과정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과 복합적 인과, 우연과 행위가 교차하는 열린 과정으로 이해됨

1. 역사의 필연성과 우연성

- 서구가 입헌민주주의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 발전을 가능케하는 인프라라는 구조적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김교수의 견해에 동의.
- 그러나 지속발전의 구조적 요인은 입헌민주주의(**제한적 민주주의**) 외에도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보호와 독립적인 사법제도, 인적자본 축적과 혁신, 사회적 자본과 신뢰 등이 있음
- 서구의 지속 발전에 있어서 우연적 요인으로 신대륙 발견, 전쟁(1차, 2차 대전)과 외부충격(글로벌 금융위기), 예기치 못한 기술혁신(산업혁명, 전기·정보통신 등 특정 시기의 혁신), 특정 시기의 지도자와 시민운동(영국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 등이 있음
- 서구의 발전과 번영은 이처럼 구조적 기반위에 우연적 사건과 기회가 결합된 복합적 산물로 볼 수 있음

2. 한국의 성공은 우연인가? 쇠퇴는 정해진 결말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김교수의 설명에 대한 토론

- 김교수의 한국의 (경제적) 기적은 구조적 요인 + 우연한 혜택 + 파워엘리트의 오만과 탈선을 제어한 제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주장에 동의.
- 서구의 근대화가 정치와 경제 양면에서 파악되는 것처럼 한국의 기적도 민주화라는 정치적 측면을 함께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한국의 경제 기적을 가능케한 구조적 요인으로 **제한적 민주주의**(권위주의 정권하의 정치체제), **유연한 중화학공업 육성**, **수출주도 산업화**, **인적자본의 broad-based 축적**, 새마을운동과 **사회적 자본의 충전**을 들 수 있음
- 민주주의 공고화**(완전한 민주주의)의 기반으로 **중산층의 성장**과 **가치관 변화**(유교 기독교 근대적 가치관이 공존하는 다원주의 사회로 전환)를 들 수 있음

【참고】산업화와 민주화(민주주의 공고화)의 동아시아와 서구 비교

(1) 서구의 산업화와 민주주의 공고화

-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서구 주요국들은 민주주의 공고화 이전에 산업화를 이룬 사례가 많음
- 영국의 18~19세기 산업혁명 시기는 제한적 의회민주주의의 체제 하였으며, 보통선거와 실질적 시민권 확대는 19세기 후반~20세기 초에야 이루어졌음
-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도 산업화 시기 왕정·제국·불안정한 공화정 등 권위주의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었고, 민주주의 공고화는 20세기 중반 이후 달성 되었음

【참고】산업화와 민주화(민주주의 공고화)의 동아시아와 서구 비교

(2) 동아시아(일본, 한국, 대만)의 산업화와 민주주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산업화 이후 민주화를 이룩한 대표 사례로 평가됨

- 일본은 메이지유신(1868년) 이후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산업화 정책으로 산업화를 이루었으나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 한국은 1960~80년대 권위주의 체제(제한적 민주주의)하에서 국가주도 산업화를 달성했고,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본격화됨
- 대만 역시 1980년대 후반까지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산업화를 이루었고, 1987년 계엄령 해제 이후 점진적으로 민주화가 진행되어 1990년대 중반에 민주주의가 공고화됨

【참고】산업화와 민주화(민주주의 공고화)의 동아시아와 서구 비교

(3) 동아시아와 서구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 산업화가 민주주의 공고화에 선행: 서구와 동아시아 모두 산업화가 민주주의의 공고화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음.
- 경제성장이 민주화의 사회적 기반: 산업화 과정에서 중산층 확대, 교육수준 향상, 시민사회 성장 등 사회구조의 변화가 민주주의의 공고화 기반을 제공

-차이점

- 서구는 점진적 민주화: 서구는 산업화와 함께 점진적으로 정치적 자유(권리)가 확대되고, 민주주의가 단계적으로 공고화 되는 경향
- 동아시아는 급진적 민주화: 동아시아는 권위주의 체제 하의 국가주도 산업화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는 시민사회 성장과 외부압력,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

2. 한국의 성공은 우연인가? 쇠퇴는 정해진 결말인가? 에 대한 김교수의 설명에 대한 토론

-김교수는 구조적 요인과 우연한 혜택에 더하여 파워엘리트의 오만과 탈선을 제
어한 내부견제를 한국의 기적 요인으로 추가

- 독재/권위주의의 외관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견제가 작동하였는데 내부견제의
뿌리는 자유민주주의, 동학·천도교·3.1운동에 있다고 봄

-내부의 견제는 구조적 요인과 우연적 요인의 경계에 있다고 보고 별도의 요인
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그 뿌리가 동학·천도교·3.1운동 정신과 자유민
주주의(민주주의의 가치는 대한민국 건국 후 출발한 이승만 정부부터 학교교육
을 통해 권위주의 정부하에서도 한국사회에 뿌리 내림)에서 비롯되었다면 한국
사회의 구조적 기반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2. 한국의 성공은 우연인가? 쇠퇴는 정해진 결말인가?에 대한 토론

-현 추세만 본다면 서구에서 나타나는 지속가능 발전의 어려움(자연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유지 보호의 어려움)과 민주주의의 위기 외에도 인구감소, 고령화, 성장동력 약화, 행복지수 하락 등으로 한국은 멀지 않아 정체 또는 쇠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큼.

-그러나 **구조 개혁**(산업, 노동, 복지, 교육, 금융 등), **혁신 생태계 구축**, **경제 양극화 해소**, **사회적 신뢰 회복**, **AI를 비롯한 신산업 주도** 등 '**대전환**'에 성공한다면 **장기적으로 재도약 가능**

-미래는 **구조적 요인**(사회전체의 혁신역량)과 **우연적 기회**(사회적 합의)가 어떻게 결합되는가에 달려 있음

3. 질문: 행복 연구와 행복의 정책학, 그리고 드레스덴의 녹지경험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볼 수 있는지?

-행복과 관련한 주요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 결정요소는 6개이며 그 중에서도 다음 4개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1. 사회적 지원과 신뢰
2. 삶의 자유와 자율성
3. 경제적 안정과 기본적 욕구 충족
4. 건강과 복지
5. 의미와 목적, 관계의 질
6. 관대함과 친절, 공동체성

역사의 필연과 우연

차 현진 (전 예금보험공사 이사)

◆ Political Economy and Population Growth in Edo-period Japan (2023년 12월)

- 일본 에도 시대(1603–1868)에 지배구조가 인구성장과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
 - ✓ 장기적 지배권이 보장된 세습 영주(daimyo)와 지배권이 단기적이며 불확실한 막부 관료(bakufu bureaucrats)의 지배구조가 지역 발전에 미친 영향
- 이론적 배경 : 맨서 올슨(Mancur Olson)가 시도한 ‘포섭적 이해관계(encompassing interest)’ 적용

이론적 배경

- ◆ 세습 영주 : **stational bandits**
 - 장기 지배 보장 → 공공재 제공 유인
- ◆ 막부 관료 : **roving bandits**
 - 단기 수탈에 집중 → 성장 억제

연구 주제

◆ 지배구조 차이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가설 1: 막부 관료 지배 지역 → 인구 증가 둔화
- 가설 2: 생산력 성장 부진
- 가설 3: 민란 빈도 증가

인구 변화

- ◆ 막부 지배 비율 ↑ → 인구 증가율 ↓
 - 100% 막부 지배 시, 6년 단위 평균 -1%
- ◆ 누적 감소폭 최대 22%
- ◆ 도시 효과를 통제해도 유의미한 결과

경제와 정치 (생산과 민란 발생)

- ◆ 막부 지배 ↑ → 성장을 ↓
- ◆ 민란 발생 : 막부 지배 ↑ → 발생 수 ↑
- ◆ 결론 : 단기 수익 추구 정책 → 장기적 안정성 저해

시사점

- ◆ 세습 영주: 장기 이익 유인을 가진 성장 친화적 정책 집행
- ◆ 막부 관료: 단기적 수탈로 경제 성장 저해
- ◆ 정치적 안정성 및 통치 지속성이 지역 발전의 핵심 변수

적용 가능성

- ◆ 중국·조선: 순환관료제 기반 통치 → 단기적 유인 구조
- ◆ 일본: 세습 봉건제 → 장기적 투자 가능
- ◆ 정치체제 차이가 근대화의 성공 여부에 영향
- ◆ 질문: 영국의 governor와 스페인의 vice ray?

◆ “The historian is a person who **remembers the future and imagines the past.**”

◆ — E. H. Carr, *What is History?*, Chapter 1, “The Historian and His Facts”

[차현진의 내 인생의 책] ①역사란 무엇인가 - 에드워드 카

입력 2018.07.01 22:38

수정 2018.07.01 22:42

차현진 | 한국은행 부산본부장

과거는 현재를 비춘다



역사에 대한 시각과 태도는 저마다 다르다. YS는 역사를 “바로 세운다”고 선언했고, JP는 역사를 “자빠뜨릴 수도 없고, 다시 세울 수도 없으며, 그냥 거기서 배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다 보니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답이 있을 수 없다. 역사 해석을 국정화하려던 박근혜 정부의 시도는 답답한 것이었다.

영국의 대가(大家) 에드워드 카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는 영화 <변호인>에서도 소개되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영화와 다른 점은, 이 책이 불온서적이 아니라 고전에 훨씬 가깝다는 점이다. 이 책에서 카는 자신의 역사철학을 강요하지 않는다. 사실과 해석, 개인과 사회, 과학과 도덕, 순환과 진보라는 대립되는 주제에 대해 성찰할 뿐이다. 하지만 각 주제에 대해 대가가 보여 주는 통찰력에는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이 책을 ‘내 인생의 책’ 중에서 첫 번째로 손꼽은 이유는 “역사가는 과거를 상상하고 미래를 기억한다”는 구절 때문이다. 역사가에게 과거는 조각 맞추기 식의 퍼즐이 아니다. 칸트가 말한 ‘보편적 세계시민사회로의 진보’나 헤겔이 말한 ‘역사의 전진’이라는 희망적 신념의 증거들을 찾는 작업이다. 그 증거수집 작업의 열쇠는 미래가 갖고 있고, 역사 연구는 특수성에 담긴 보편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경제학을 전공한 필자는 언젠가부터 역사가를 흉내 내고 있다. 영국의 중앙은행사를 연구하던 존 클래팸이 “경제학자란 종건 싫건 역사학자”라고 말한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사란 무엇인가>는 경제학자 또는 역사학자에게 과거와 함께 미래를 보라고 충고한다. 과거라는 그림자는, 미래라는 태양이 현재라는 사물을 비춘 것이기 때문이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